

建軍 前史: 건군 주역들의 시대적 배경과 군사경력

南 廷 屋*

1. 머 리 말
2. 일제강점기 시대적 상황과 군사적 배경
3. 건군 주역들의 군맥과 계보
4. 광복 이후 건군 주역들의 활동
5. 맺 음 말

1. 머 리 말

대한민국 국군은 미군정기(美軍政期)에 ‘국방경비대’로 태동하여 대한민국 건국과 동시에 독립국가의 정규군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건군주역(建軍主役)’들이 참여했던 건군과정은 지난(至難)한 여정의 연속이었다. 광복 이후 건군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건군주역들은 일제강점기하 광복군·중국군·일본군·만주군 출신 간부들과 기타 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

에 종사했던 군사경력자(軍事經歷者)들이다.¹⁾ 그들은 당시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러했듯이,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유년과 청·장년 시절을 일제(日帝)가 지배하는 식민지 국민으로의 삶을 강제당했던 ‘불우한 세대(世代)’였다.

일제의 한국지배는 중국 대륙 및 태평양전쟁을 위한 전시체제하의 군사적 토대위에서 출발했다.²⁾ 그렇기에 ‘일본화(日本化)되는 식민지 조국’에서 이 땅의 건군주역들이 선택했던 군인의 길도 당시 수많은 식민지하의 조선의 식자층(識者層) 젊은이들이 한 번쯤 도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직업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들이 군인이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이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이 대별(大別)할 수 있다. 즉,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³⁾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⁴⁾ 생계를 위한 직업의 일환으로,⁵⁾ 일본인 학생을 누르기 위한 단순한 경쟁심의 발로에서,⁶⁾ 군인이라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⁷⁾ 주변의 지인(知人)이나 친척 또는 스승의 권유에 의해서,⁸⁾ 강제노역으로 끌려

- 1) 韓鎔源, 『創軍』(서울: 博英社, 1984), p. 31; 육군본부, 『創軍前史』(서울: 군사연구소, 1980), pp. 264-268.
-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전시체제와 민중운동』 제50권(경기 과천: 탐구당문화사, 2001), pp. 13-121; 李瑄根, 『大韓國史: 臨時政府樹立-8·15』 제10권(서울: 한국출판공사, 1984), pp. 322-379;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 『軍事史 研究叢書』 제2집(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p. 77.
- 3) 金弘壹, 『大陸의 憤怒』(서울: 문조사, 1972), pp. 49-50; 이윤식, 『항공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창석 최용덕의 생애와 사상』(충남 계룡: 공군본부, 2007), pp. 76-77; 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편, 『鐵驥 李範奭 評傳』(서울: 三育出版社, 1992), p. 205.
- 4) 이원복, 『이성이 장군 참전기: 永川大會戰』(충남 계룡: 육군본부, 1995), p. 24; 劉載興, 『激動의 歲月』(서울: 乙酉文化史, 1994), pp. 38-40; 김정렬, 『金貞烈回顧錄』(서울: 乙酉文化史, 1993), pp. 62-63; 조갑제, 『朴正熙: 軍人の 路』(서울: 조갑제닷컴, 2006), pp. 82-85, 216-219.
- 5) 申鉉俊, 『老海兵의 回顧錄』(서울: 가톨릭출판사, 1989), p. 31.
- 6) 李亨根, 『李亨根 回顧錄』(서울: 중앙일보사, 1993), pp. 15-16.
- 7) 白善燁, 『6·25한국전쟁 회고록: 軍과 나』(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p. 111.
- 8) 姜聲才, 『참 軍人 李鍾贊 장군』(서울: 동아일보사, 1986), p. 108; 趙甲濟, 『李龍文 將軍

*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가기 보다는 차라리 군인으로 가는 편이 나아서,⁹⁾ 일본의 강제징집에 의해서,¹⁰⁾ 그리고 미래 독립될 조국의 간성이 되기 위해서였다.¹¹⁾ 그들은 이러한 연유로 국내 또는 해외로 진출하여 군대와 인연을 맺었다.

일제강점기에서 건군 주역들은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질적이면서 다채로운 군을 통해 군대 경험을 했다. 중국에서는 장개석(蔣介石)의 중국군(中國軍)이나 광복군(光復軍) 또는 일본의 학병(學兵)으로, 만주에서는 만주군(滿洲軍)으로, 국내 및 일본 그리고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군(日本軍)으로, 미주 및 하와이에서는 광복군 및 한인 포로로, 심지어는 지구 반대편의 동부유럽에서는 폴란드(Poland) 군인으로 복무했다. 그들은 모두 일제가 지배하는 '식민지 공간'을 탈피하여 자의든 타의든 간에 새로운 도전적인 삶을 모색했다. 이처럼 그들이 선택했던 군인의 길은 그들의 뜻이

- 評傳: 젊은 巨人의 초상』(서울: 샘터, 1988), p. 27; 대한민국 국방부, 『朴範集 評傳』(서울: 국방부, 1955), pp. 106-107; 이종찬, 『蔡秉德 評傳』, 『自由民에게 傳해다오』(서울: 대한민국 국방부, 1955), pp. 17-18; 임부택, 『林富澤의 韓國戰爭 秘錄: 洛東江에서 楚山까지』(서울: 그루터기, 1996), p. 16; 장지량, 『전 공군참모총장 장지량 장군의 이야기: 빨간마후라 하늘에 등불을 켜고』(서울: 이미지북, 2006), p. 3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연구소 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박경원』(서울: 선인, 2002), pp. 222-223; 丁來赫, 『丁來赫 回顧錄: 격변의 생애를 돌아보며』(서울: 삼양에드, 2001), pp. 25-26.
- 9) 이원복, 『타이거 장군 송요찬』(대전: 육군교육사령부, 1996), p. 32; 공국진, 『公國鎭 回顧錄: 한 老兵의 哀歡』(서울: 원민, 2001), pp. 28-29; 金潤根, 『혁명주체 金潤根 장군의 秘話手記』(서울: 汎潮社, 1987), p. 32.
- 10) 劉賢鐘, 『白馬高地: 金鍾五 將軍 一代記』(서울: 乙支出版公社, 1985), pp. 34-39; 김웅수, 『金雄洙 회고록』(서울: 새로운 사람들, 2007), pp. 78-79; 강영훈, 『나라를 사랑한 벽창우』(서울: 동아일보사, 2008), pp. 68-69; 장도영, 『望鄕: 전 육군참모총장 장도영 회고록』(서울: 숲속의 꿈, 2001), pp. 87-88; 이치업, 『번개장군』(서울: 원민, 2001), pp. 55-57; 최홍희, 『태권도와 나: 수난의 땅 나의 조국』 제1권(서울: 다움, 2000), pp. 76-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민족연구소 편,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백남권』(서울: 선인, 2002), pp. 173-174; 한신, 『韓信 回顧錄: 신념의 삶 속에서』(서울: 明成出版社, 1994), pp. 45-47.
- 11) 丁一權, 『丁一權 回顧錄』(서울: 고려서적, 1996), p. 67; 李東潤, 『金白一 評傳』, 『自由民에게 傳해다오』, p. 58; 이한림, 『이한림 회상록: 세기의 격랑』(서울: 팔복원, 1994), pp. 384-385.

어디에 있든지 일제강점기라는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이 빚어낸 식민지 유산의 결과였다.¹²⁾

일제강점기 비록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 색깔은 달랐지만, 그들은 오랫동안 같은 문화적 공간에서 생활해 왔던 동족이었다. 광복 이후 건군 주역들이 과거 그들의 군복색깔에 관계없이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건군의 초석이 되고자 군문을 두드렸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¹³⁾ 즉, 그들은 광복된 조국에서 새로 태어날 국가의 군인으로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광복 이후 건군 대열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건군 주역들이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기에 군에 입문한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식민지 공간에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땅에 태어나 어쩔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그 당시 국민 대다수가 모두 피해자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내용을 전개했다. 특히 건군 주역들이 다양한 군대경력과 군사문화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경험이 광복 이후 미 군정기를 거치며 건군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군 과정을 통해 나타난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이러한 점에서 건군 주역들의 일제강점기 군사경력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군맥(軍脈)과 계보(系譜) 역시 대한민국 건군사(建軍史)와 국방사에 중요한 지표로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지만 건군의 주역으로서 오늘날 국군의 근간을 이루게 한 그들의 군사경력과 건군과정에서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 연구 성과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시기 및 내용상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건군 관련 최초의 연구는 1950년대부터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비롯한 군 연구기관에서 국방사, 건군과정 및 6·25전쟁의 배경을 다룬 공간사

12) 이한림, 『이한림 회상록: 세기의 격랑』, p. 14.

13) 李應俊, 『回顧 90年 1890-1981』(서울: 汕耕紀念事業會, 1982), p. 229.

(公刊史) 속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군에서 이루어진 이들 연구는 주로 광복 이후 미군정기하의 극심한 좌우(左右) 대립속의 건군활동에 초점을 맞추었거나, 6·25전쟁의 배경으로 다루어졌다.¹⁴⁾ 따라서 이들 공간사는 일제강점기하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과 일제하 건군 주역들의 군사경력에 대해서는 소략(疏略)하여 기술하고 있다.

둘째, 건군 주역뿐만 아니라 건군과정에 참여했던 일제강점기하 주요 군사경력자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룬 획기적이면서도 보다 심화된 연구가 학계(學界)에서 나왔다. 이 연구는 광복 이후부터 6·25전쟁 발발 이전까지 건군 주역들이 국내외 상황을 조망한 가운데 건군과정을 군사적 측면에서 심층있게 다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뤘던 일제강점기하 다양한 군사경력자들의 현황을 출신별로 빠짐없이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도표화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질을 높였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체계화하고 종합시킨 최초의 연구서로 평가받고 있다.¹⁵⁾ 하지만 이 연구도 일제시대 군사경력자들이 군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를 드러냈다.

셋째, 건군과정을 직접 체험한 건군 주역들의 회고록과 평전 등이 1990년대 이후 대거 쏟아져 나왔다. 그 중 합참의장을 지낸 장창국(張昌國) 장군의 저서가 이 분야에서 단연 백미(白眉)가 아닌가 생각된다. 또 정일권(丁一權) 장군의 회고록을 비롯하여 이와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회고

14) 국방부, 『國防部史』 제1집, 1954;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제1권, 1967; 육군본부, 『創軍前史』, 1980; 국방부, 『國防史』 제1권, 1984; 전쟁기념사업회, 『현대사속의 국군: 군의 정통성』, 1990; 육군본부, 『國軍의 脈』, 1992; 국방군사연구소, 『建軍 50年史』, 19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建軍史』, 200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戰爭史: 戰爭의 背景과 原因』 제1권, 2004.
15) 韓鎔源, 『創軍』(서울: 박영사, 1984). 이외 연구로는 다음의 저서가 있다. 고정훈, 『秘錄軍』(서울: 東方書苑, 1967); 李基東, 『悲劇의 軍人들: 日本陸士出身의 歷史』(서울: 일조각, 1982);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編譯, 『韓國戰秘史: 建軍과 試鍊』 上(서울: 병학사, 1977).

록과 평전이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¹⁶⁾ 하지만 이들 회고록과 평전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됐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史實)과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넷째, 2000년 이후 학계 일각에서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를 비롯하여 특정 출신 군사경력자들에 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주로 만주지역의 만주군 출신 및 일본 관동군 출신 한국인 군사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들 연구를 통해 만주군의 성격과 만주군 군관학교의 교과과정 및 한국인 군사경력자들에 대한 현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알 수 있다. 또한 심층적인 연구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일제강점기 일제의 병력동원 체제와 일본군내 다양한 각종 군사학교 및 일본군에 징집된 한국인에 대한 연구 성과도 있다.¹⁷⁾ 그렇지만 이들 연구는 만주군에 국한됐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16) 張昌國, 『陸士卒業生』(서울: 중앙일보사, 1984); 丁一權, 『정일권 회고록』(서울: 고려서적, 1996); 백선엽, 『6·25한국전쟁 회고록: 軍과 나』(서울: 대륙연구소출판부, 1989); 金弘壹, 『大陸의 憤怒』(서울: 문조사, 1972); 김정렬, 『金貞烈回顧錄』(서울: 乙酉文化史, 1993); 김석원, 『老兵의 恨』(서울: 育法社, 1977); 이응준, 『回顧 90年 1890-1981』(서울: 汕耕紀念事業會, 1982); 조갑제, 『한 근대화 혁명가의 비장한 생애: 박정희①, 불만과 불운의 세월 1917-1960』(서울: 까치, 1992); 유재홍, 『激動의 歲月』(서울: 乙酉文化史, 1994); 이원복, 『타이거 장군 송요찬』(대전: 육군교육사령부, 1996); 정래혁, 『정래혁 회고록: 격변의 생애를 돌아보며』(서울: 삼양애드, 2001);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서울: 해양전략연구소, 2006); 김우수, 『金雄洙 회고록』(서울: 새로운사람들, 2007); 이윤식, 『항공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공군의 아버지: 창석 최용덕의 생애와 사상』(충남 계룡: 공군본부, 2007); 강영훈, 『나라를 사랑한 벽창우』(서울: 동아일보사, 2008); 김성은, 『前 국방장관 김성은 회고록: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서울: 아이템플 코리아, 2008).
17)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 『軍事史 研究叢書』 제2집(서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02), pp. 77-139; 신주백, 『滿洲國軍 속의 조선인 군인들』, 『식민지 경험과 박정희 시대』, 2002년 정기학술대회(역사문제연구소 주관, 2002), pp. 25-51; 박민영, 『해방후 만주 관동군 출신 한인의 귀환』, 『해방후 해외 한인의 귀환과 정착』, 제3회 귀환문제 학술심포지엄(서울: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4), pp. 35-54; 안정애, 『만주군 출신 장교의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韓國人物研究』 제3호(서울: 한국인물사연구소, 2005), pp. 327-356.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미비점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건군주역들이 일제강점기 때 식민지하에서 군에 들어온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시기 그들이 복무했던 다양한 군대를 통해 형성된 군맥과 계보를 건군 과정의 틀 속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때 건군 주역들이 나왔던 각종 군사학교의 특징과 성격도 아울러 고찰했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광복 이후 이들이 관여했던 건군활동도 조망했다. 이는 건군 주역들이 6·25전쟁 동안 국군의 주요지휘관 및 참모로 전쟁을 주도했고, 전후에는 국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력증강의 최선두에서 오늘날 대한민국 국군으로 성장·발전시킨 공로를 충분히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군에서 발간된 건군 관련 공간사를 비롯하여 학계의 연구 성과, 그리고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논문들을 가급적 빠짐없이 활용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시대적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이 시기 한반도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국가의 정통성을 근간으로 하여 올바르게 기술된 『한국사』와 『大韓國史』를 적극 활용했다.¹⁸⁾

2. 일제강점기 시대적 상황과 군사적 배경

(1) 일제의 한반도 병참기지화와 한국인의 '일본인화'

일제(日帝)는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韓日合併)'에 관한 조칙(詔勅)

18)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전시체제와 민중운동』 제50권(경기 과천: 탐구당문화사, 2001); 李瑄根, 『大韓國史: 朝鮮王朝의 終幕』 제8권(서울: 한국출판공사, 1984); 李瑄根, 『大韓國史: 망국의 치욕과 저항』 제9권(서울: 한국출판공사, 1984); 李瑄根, 『大韓國史: 臨時政府樹立-8·15』 제10권(서울: 한국출판공사, 1984).

·칙유(勅諭) 및 합방조약문을 공포하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의 국호를 '조선(朝鮮)'으로, 순종황제를 '창덕궁 이왕(李王)'으로 고종황제를 '덕수궁 이태왕(李太王)'으로 격하하고, 이 나라를 강제로 병탄(併呑)함으로써 35년간에 이르는 일본의 무단통치(武斷統治)의 길을 열었다.¹⁹⁾ 이에 앞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군사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해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무력에 의한 한반도 군사적 지배체제를 강화했다.²⁰⁾

일제는 35년간의 강점기 동안 4단계에 거쳐 한국의 인력과 물자를 강탈했다. 제1단계는 1910년대의 토지수탈이고, 제2단계는 1920년대의 양곡수탈이고, 제3단계는 1930년대의 인력수탈이고, 제4단계는 1940년대 전쟁동원을 위한 총력수탈이다.²¹⁾ 그렇지만 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제는 더욱 간교하게 한국에 대한 식민지정책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일제는 한국을 영구적인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한국의 역사와 언어는 물론이고 민족혼까지 말살하고자 획책했다.

또한 일제는 군국주의가 극도로 팽창하던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31년 9월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한 일제의 침략전쟁은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에 이르러 본격화됐다. 특히 일제는 1941년 12월 미국 최대의 해군기지인 진주만에 대한 기습공격을 감행함으로써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²²⁾

일제의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 통치도 그들의 전쟁수행 정책에 맞춰 본색을 드러냈다. 조선총독부는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대륙전진병참기지로서의 역할과 이를 위한 정책을 한반도에 적용했다. 즉, 조선총독부는 전시체제를 강조하면서 전쟁수행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19) 李瑄根, 『大韓國史』 제8권, pp. 424-425; 李瑄根, 『大韓國史』 제9권, p. 12.

20) 李瑄根, 『大韓國史』 제8권, pp. 373-424.

21) 張昌國, 『陸士卒業生』(서울: 中央日報社, 1984), p. 39.

22)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 325; Allan R. Millett, *The War for Korea 1945-1950: A House Burning*(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2005), pp. 36-38.

추진했다. 일제의 전시체제 강화를 위한 한반도 식민지 정책은 사전에 작성된 그들의 계획대로 다음과 같이 치밀하게 진행됐다.

먼저, 일제는 한국인들의 활동 전반을 철저히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일제가 전쟁수행을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이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일제는 「보안법(保安法)」,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출판법(出版法)」 등의 각종 법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의 일거수일투족(一舉手一投足)까지도 철저히 통제했다.²³⁾ 특히 만주사변 직후에는 일본군과 경찰을 크게 증강시켜 한국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또한 일제는 행동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다. 그들은 한국인의 사상적 통제를 합법화하기 위해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1936. 12)」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1941. 2)」을 공포하여 한국인을 완전한 '일본인화(日本人化)'하고자 광분(狂奔)했다.²⁴⁾ 이는 한국인 사상범을 사전에 감시하거나 구금하려는 일제의 간교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한국인을 옥죄는 일제의 각종 법망(法網)이 그물처럼 펼쳐 있는 마치 거대한 감옥처럼 되어 버렸다.

둘째, 일제는 전쟁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인적·물적 약탈을 감행했다. 그들은 필요한 군수용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경제적 수탈을 자행했다. 대륙침략을 감행하면서 일제는 조선의 경제체제를 군수공업 중심으로 재편하고, 군수품을 생산하기 위한 금속·기계·중화학 공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했고, 군량확보를 위해 미곡공출제도를 시행했다. 이와 병행해서 일제는 전쟁에 필요한 인력을 강제로 동원했다. 중일전쟁 후 일제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본격적으로 동원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의 생활을 정부가 마음대로 간섭하고, 징발 또는 징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²⁵⁾ 여기에는 식민지 조선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총

23)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p. 93-96.

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제50권, p. 2.

25)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 32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제50권, pp. 47-50.

동원법이 1938년 4월 일본에서 공포되어 그 해 5월 10일에 조선으로 확대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한국인이 소유한 것은 무엇이든지 빠짐없이 징발·징용했고, 1939년 10월부터는 한국인을 노무자로 징용했다.²⁶⁾ 이들 한국인 노무자들은 일본과 사할린 등지로 끌려가 일제의 전쟁 수행에 필요한 탄광·비행장·군수공장·철도 등의 공사장에서 노예처럼 혹사당했다. 그리고 '여자정신근무령'을 만들어 여성들까지 전쟁수행에 강제 동원시켰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 체제로 개편하여 지배권을 강화한 뒤 대륙침략전쟁을 감행했다.

셋째, 일제는 경제적·인적 수탈과 더불어 '민족말살정책'을 획책했다. 민족 말살은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이란 논리하에 한국 강점 이후부터 지속되었던 것으로, 침략전쟁이 확대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일제는 전쟁의 확대로 병력이 필요하게 되자 한국인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일본에게는 한국인을 무장시키는 데에 커다란 고민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무기를 들고 전쟁에 임해야 할 한국인을 사상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것과 전선의 후방이 될 한반도가 병참기지로써 안정되어야 된다는 것이었다. 이런 해결 방안이 바로 한국인을 일본인화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일제는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운동(國民精神總動員運動)'을 전개하면서 '내선일체(內鮮一體)' 등의 슬로건을 표방하며 한국인의 일본인화 개조에 열(熱)을 올렸다. 또한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을 통해 한국인들의 의식·언어·역사를 완전히 말살하는 교육정책을 시행했고, 민족언론지(民族言論誌)인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폐간시켜 언론을 통제했다. 일제는 전세가 극도로 불리하게 전개되어 가자 '조선어 사용금지, 창씨개명(創氏改名), 신사참배(神社參拜)' 등을 통해 민족정신을 말살하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했다.²⁷⁾

넷째, 일제는 전선의 확대에 인하여 부족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지원병

26)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p. 324-325.

2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제50권, pp. 50-62.

제도·징병제도·학도지원병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의 청년들을 강제로 일본군으로 징집하여 전쟁터로 끌고 갔다.²⁸⁾ 이처럼 전쟁의 확대에 의해 한국은 단순한 대륙진병참기지에서 이제는 일제의 전쟁수행에 중요한 병력공급기지로써의 역할을 했다. 이에 한국의 청·장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전쟁터로 끌려가지 않으면 안 될 운명에 놓이게 됐다.

이렇듯 1931년 만주침략에서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일제의 침략전쟁은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주었다.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정책이 그들의 전쟁수행 정책에 집중되면서 한국인에 대한 경제적·인적 수탈은 물론이고, 이와 병행해서 실시된 한국인에 대한 민족말살 정책으로 한반도는 대륙침략을 위한 일제의 단순한 병참기지에서 그들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전투원을 공급하는 병력공급기지로 확대됐다.²⁹⁾

(2) 일제의 전시체제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와 군사경력자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은 전투수행여부에 따라 군사요원과 비군사요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요원은 전장에서 직접 전투를 수행하는 자(者)를 말하고, 비군사요원은 전투에 참가하지는 않지만 전투요원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³⁰⁾ 또한 동원방식에 따라 지원병제와 징병제로 나눌 수 있으나, 엄격한 의미에서 이것은 모두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하겠다. 다만, 1938년부터 실시된 지원병제는 일제의 침략전쟁 확대와 장기화에 따른 병력 부족을 해소한다는 목적과 함께 한국인에게 '황국신민(皇國臣民)' 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의도 아래 실시됐다.

28)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 3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제50권, pp. 65-67.

29)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 329;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제50권, p. 3.

30)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 pp. 81-82.

반면, 징병제는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절박해진 일본군이 그들의 병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일제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병력 규모는 평균 200만 명 내지 250만 명인데 반해 일본인만으로 병력을 충당할 경우 그 수는 불과 120만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한국인에게까지 이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부득이 징병제를 실시했던 것이다.³¹⁾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을 치르면서 일본인에 의한 병력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자 한국인을 강제로 동원하게 됐다. 그러다가 1941년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막대한 인력 및 물자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그들의 식민지에서 인력을 강제 동원했다. 일제가 병력을 동원함에 있어서 한국에 적용한 그 첫 번째 조치가 1938년 2월 2일 일제 칙령 제95호로 공포되고, 동년 4월 3일자로 시행된 「육군특별지원병령」이었다. 이를 필두로 일제는 1943년에 「해군특별지원병제」를 공포했고, 1944년에는 전문학교 이상 한국인 학생을 강제로 징집하는 「학도동원령」과 한국의 모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면적인 「징병제」를 실시했다.³²⁾

육군특별지원병제는 1937년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전개되면서 1938년 2월 「육군특별지원병령」의 공포와 더불어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시켰고, 1938년 6월 15일 최초로 육군지원병 지원자들이 임시훈련소에서 6개월간 훈련을 받고 일본군 부대에 배치됐다. 해군특별지원병제는 1943년 7월 28일 공포되어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 해 10월 훈련생이 선발되어 1944년 4월에 진해경비부에서 3개월간의 교육을 받고 부대에 배치됐다. 학도지원병은 1943년 9월 21일 일본 수상의 전시비상체제 발표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1943년 10월 20일 한국인 학도의 병역지원 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접수기간은 10월 25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징병검사는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입영은 1944년 1월 20일부

3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제50권, p. 66.

3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전시체제와 민족운동』 제50권, pp. 65-69; 李瑄根, 『大韓國史: 臨時政府 樹立-8·15』 제10권, pp. 334-335.

터 실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에 한국에서 제1차 징병검사가 1944년 4월 1일부터 8월 중순까지 실시됐고, 제2차 징병검사가 1945년 2월부터 5월에 걸쳐 실시됐다.³³⁾ 하지만 학도지원병은 일제가 명목상 지원병이라고 하였으나, 실지로는 학교 당국과 일제가 학부모를 협박하거나 이를 지원하지 않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군대에 입대하도록 했다. 이에 관한 모든 업무는 일본 육군성(陸軍省)과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가 주관하여 집행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³⁴⁾

구 분	동원인원 (명)	법령 근거	비 고
계	389,289		15만여 명은 전사(戰死) 및 해방불명(行方不明)
육군지원병	17,664	• 육군특별지원병령(‘38.2.2)	송요찬·최경록·임충식·이병형 등
해군지원병	3,000	• 해군특별지원병령(‘43.5.11)	이용운·강기천·현시학 등
육군 징병	186,980	• 병역법중개정법률안(‘43.3.1) • 일반징병령(‘43.8.1)	신검(‘44.4.1~8.20), 입대(‘44.9.1~45.5)
학 병	4,385	• 학도동원령(‘43.10.12)	전문대학 학생 이상(최영희·김종오·장도영·민기식·백인엽·강영훈 장군 등)
해군 징병	22,290	• 해군병 징모검사(‘44.5.10)	-
해군 군속 및 포로감시원	154,970	• 포로의 단속과 경계를 위한 특수부대 편성 등에 관한 방안	해군작업 애국단원 및 포로감시원

33)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p. 326-335, 377-378;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 pp. 84-85.
34) 韓鎔源, 『創軍』, p. 37;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 335.

또한 일본은 육군예비사관학교·육군경리학교·육군유년학교·육군병기학교·육군소년전차병학교·육군소년통신병학교·육군야전포병학교·육군중포병학교·육군방공학교·동경육군항공학교·육군도야마(戶山)학교 등을 설치하여 운용했다.³⁵⁾ 해군은 소년수병·특별소년병·비행예과연습생(갑종·을종) 등 특수병과를 설치하여 운용했다.³⁶⁾ 일제는 이들 각종 군사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한국인에게 병역을 강요했다.

이외에도 일제는 비군사요원인 군속(軍屬)을 한국인으로 충원했다. 군속은 군 관계공사, 군수공장에 인력 동원된 경우 토목공사 및 공장 등에서 근무하며 군부대를 지원했다. 일제강점기 때 징집·징용된 한국인 중에서 전쟁에서 희생된 사람보다 군속 신분으로 희생된 자가 더 많았다. 특히 해군 군속에 한국인이 많았는데, 해군에는 육군의 공병대와 같은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해군설영대(海軍設營隊)가 조직되어 한국인들이 사역을 담당했다.³⁷⁾

또한 전장이 확대되면서 남방지역의 포로가 증가하자 일제는 이들 포로를 감시할 포로감시원이 필요했다. 1942년 5월 일본이 태평양전쟁을 통해 획득한 포로는 26만여 명에 달했다. 이에 일본군 포로정보국은 「포로의 단속과 경계를 위한 특수부대 편성 등에 관한 방안」에 근거하여 한국에서 포로감시원 모집을 했다. 그러나 이들은 강제 또는 반강제적으로 전쟁터로 끌고 갔다. 그 밖에 일제가 강제로 징집 및 징용한 한국인으로는 중군간호부·중군위안부·통역 등이 있었다.³⁸⁾

이렇게 해서 일제가 강제로 동원한 병력은 육군지원병 17,664명, 해군지원병(제1·제2기생) 3천 명, 육군징병 186,980명, 해군 징병 22,290명, 군속 가운데 해군 작업 애국단원 및 미·영군 포로감시원 등 154,970명, 학병 4,385명 등을 포함하여 총 389,289명을 강제 동원했다.³⁹⁾ 또한 강제성

35)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 335.
36)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 p. 83.
37)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 p. 83.
38)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 p. 86.

은 없었으나 주변의 권유 등 기타 사유로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입교한 한국인도 230여 명이 있었다.⁴⁰⁾ 여기에는 만주군관학교 졸업자 중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유학한 자도 포함됐다.

한편, 일제에 의해 조국이 강점당하자 이에 울분을 품고 조국 광복을 위해 만주 및 연해주로 탈출하여 중국군 및 광복군에 들어가 항일전선에 뛰어들어 애국지사들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가 일제에 의해 해산되자 이에 항거하여 만주 및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그 가운데 광복군은 1907년 군대해산에 항거하여 봉기했던 의병(義兵)과 1910년 한일합병 이후 만주 등지에서 구국항쟁(救國抗爭)하던 독립군들로 이루어졌다. 군대해산 이후 일본에 항쟁하던 의병들은 일본군의 6년간에 거친 끈질긴 토벌작전과 한일합병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만주 독립운동의 기지였던 간도(間島)에 뿌리를 내리고,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 등 군사학교를 설립하여 군사지도자를 양성했다. 또한 일부 군사경력자는 중국의 군관학교에 입교하여 중국군 장교로 임관하여 활동하다가 1940년 광복군이 창설된 이후 광복군에 대거 참여하게 됐다. 이와 같이 일제강점기 광복군 및 중국군 출신 군사경력자들의 숫자는 모두 35,000명에 달했다.⁴¹⁾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또한 만주군 출신으로는 봉천군관학교 출신 39명, 신경군관학교 출신 48명, 육군훈련학교 출신 13명, 육군군수학교 출신 8명, 육군군의학고 출신 12명이 있다.⁴²⁾ 이렇게 볼 때 만주군 출신 장교들은 약 120명에 달한다.

39) 李瑄根, 『大韓國史: 臨時政府 樹立-8·15』 제10권, p. 335; 韓鎔源, 『創軍』, p. 37. 이외도 일본은 1939년부터 1944년까지 5년간 강제로 모집한 한국인 노동자는 최초 계획된 인원 718,800명의 절반 수준인 357,991명을 강제 동원했다.

40) 樋口雄一, 『皇軍兵士にされた朝鮮人-十五年戰爭下の總動員體制の研究』, 社會評論社, 1991, p. 85;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제』, p. 82에서 재인용.

41) 韓鎔源, 『創軍』, p. 30.

42)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36.

<표 2> 일제강점기 한국인 군사경력자⁴³⁾

합 계	광복군 및 중국군	일본군	만주군	비 고
424,409명	3만 5천명	389,289명	120명	

3. 건군 주역들의 군맥과 계보

(1) 광복군 및 중국군 출신 군사경력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인 광복군(光復軍)은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重慶)에서 창설됐다. 광복군 창설은 1908년 8월 1일 대한제국 군대 해산 이후 32년째이고, 1919년 임시정부 수립 이후 21년째였다.

광복군은 정신적으로는 대한제국의 국군을, 인적 맥락에서는 독립군을 계승하여 창설됐다. 이는 상해에서 수립된 임시정부가 독립투쟁의 수행을 주요 목표로 정한 후,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制),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大韓民國陸軍臨時軍區制), 육군무관학교조례(陸軍武官學校條例) 등 군대의 편성과 독립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정책 수립에서 알 수 있다. 그 후 임시정부는 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군사정책을 추진했고, 그 귀결이 광복군 창설이었다.

광복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적 자원은 중국 관내의 군관학교에서 배출된 군사간부들과 만주에서 온 독립군 세력이 주축을 이루었다. 중국 관내에서는 1910년대 이래 운남강무당(雲南講武堂),⁴⁴⁾ 귀주강무당(貴州講武堂), 황

43) 韓鎔源, 『創軍』, p. 37; 李瑄根, 『大韓國史』 제10권, p. 335;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p. 36, 46-48.

44) 운남강무당은 일본 육사 출신인 당계요(唐繼堯)가 운남성(雲南省) 곤명(昆明)에 설립한

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⁴⁵⁾ 중국중앙군관학교(中國中央軍官學校)를 비롯한 중국의 각종 군관학교에서, 그리고 1930년대에는 김구(金九)와 김원봉(金元鳳)이 설립한 낙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⁴⁶⁾와 조선혁명간부학교(朝鮮革命幹部學校)⁴⁷⁾에서 배출된 군사경력자들이다.

운남장무당 출신으로는 이범석(李範奭)·이준식(李俊植)·김관오(金冠五) 등이 있다. 귀주장무당 출신으로는 김홍일(金弘壹)이 유일하다. 낙양장무당 출신으로는 채원개와 오동기(吳東起)가 있다. 하남군관강습소 출신으로는 송호성(宋虎聲)이 있고, 낙양군관학교 한인특별반 출신으로는 안춘생(安椿生)과 고시복(高時福)이 있다. 보정군관학교 출신으로는 오광선(吳光鮮)과 조개옥(趙介玉)이 있고, 남경군관학교 출신으로는 이성가(李成佳)가 있다.

중국군 출신 중 가장 많은 인재를 배출한 학교는 손문(孫文)이 건립하고

군관학교이다. 이 학교에는 한인청년학생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곳 중의 하나이다. 1916년 이범석 장군은 여운형(呂運亨)을 따라 상해에 와서 신규식(申圭植)의 주선으로 이 학교에 입학하여 1919년 기병과(騎兵科)를 졸업했다. 이 학교를 졸업한 한국인은 이준식(李俊植)과 김관오(金冠五)를 비롯하여 50명에 이른다.

- 45) 황포군관학교는 손문(孫文)이 광둥정부(廣東政府)를 수립한 후 국민혁명에 필요한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 레닌정부의 재정과 군사적 지원을 받아 설립한 군관학교로서 정식명칭은 중국국민당육군군관학교(中國國民黨陸軍軍官學校)였고, 광둥성(廣東省) 주장(珠江)의 장주도(長洲島) 황포(黃埔)에 위치하고 있어 황포군관학교라고 한다. 황포군관학교는 1924년 1월 장개석을 군관학교주비위원회(軍官學校籌備委員會)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설립을 추진한 이래 6월 6일 장개석을 교장으로 하여 개교했다. 졸업생은 6개 기에 걸쳐 2만여 명에 달한다. 한국학생들은 제3기부터 입학했다. 대표적 한인으로는 김원봉(金元鳳), 권준(權駿), 박효삼(朴孝三) 등이 있다. 황포군관학교는 개교 당시에는 중국국민당육군군관학교(中國國民黨陸軍軍官學校), 이후 국민혁명군중앙군사정치학교(國民革命軍中央軍事政治學校)(1926년 2월), 국민혁명군군관학교(國民革命軍軍官學校)(1928년 5월), 국민혁명군황포군관학교(國民革命軍黃埔軍官學校)(1929년 9월) 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됐다. 그리고 1930년에는 남경(南京)의 중앙육군군관학교(中央陸軍軍官學校)로 흡수됐다.
- 46) 낙양군관학교는 김구에 의해 독자적으로 운영됐다. 이 학교는 1934년 2월 개교했다.
- 47) 조선혁명간부학교의 정식명칭은 조선혁명군사정치간부학교(朝鮮革命軍軍事政治幹部學校)로, 김원봉이 의열단원(義烈團員)들의 군사훈련을 위해 1931년 10월 20일 남경(南京) 교외의 선사묘(善祠廟)에 설립한 학교이다.

장개석이 초대 교장을 지낸 황포군관학교이다. 황포군관학교 출신으로는 제3기의 이일태, 제4기의 권준(權駿), 제5기의 박시창(朴始昌)과 장흥(張興), 제10기의 최덕신(崔德新)과 김동수(金東洙), 제11기의 박기성(朴基成), 제15기의 유해준(俞海濬), 제17기의 박영준(朴英俊)이 있다.

또한 1930년대 중반부터 중국 관내로 들어온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등 만주독립군 세력들이 있었다. 특히 1920년대 이후 청산리 전투 등 항일 무장독립투쟁에서 주로 활동한 만주독립군 출신들이 많았다. 이처럼 광복군 지휘부를 구성하고 있는 만주독립군 출신의 핵심간부로는 총사령 이청천(李青天), 참모장 이범석,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공진원(公震遠), 제3지대장 김학규(金學奎) 등이 있었다.

한국광복군은 총사령부와 3개 지대로 편제됐다. 최초에는 사령부와 단위 부대로 제1·제2·제3·제5지대 등 4개 지대가 있었으나, 1942년 조선의용군의 광복군 편입과 제5지대장 암살사건으로 전면 개편됐다. 즉, 편입해온 조선의용군을 제1지대로, 종전의 제1·제2·제5지대를 통합하여 새로이 제2지대로, 그리고 1945년 6월 안휘성(安徽省) 부양(阜陽)에서 활동하던 징모 제6분처가 발전하여 제3지대가 됐다. 제1지대는 김원봉을 지대장으로 하고 본부는 중경에, 그리고 구대(區隊)는 호북성(湖北省) 노하구(老河口)와 절강성(浙江省) 김화(金華)에 두었다. 제2지대는 총사령부 참모장인 이범석이 지대장으로 부임하여 섬서성(陝西省) 서안(西安)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제3지대는 김학규를 지대장으로 하고 안휘성 부양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1945년 4월 군무부장(軍務部長) 보고에 의하면, 광복군 인원은 장교·대원·사병 등을 포함하여 총 541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중국군 장교 65명을 제외하면 실제 한국인 광복군 수는 449명이었다.

이외에도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으로 광복군으로 활동한 자는 일본 육사 제11기인 노백린(盧伯麟)을 비롯하여 제15기의 유동열(柳東悅), 제23기의 김광서(金光瑞), 제26기의 이청천 등이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중국 군관학교 출신 한인 군사경력자⁴⁸⁾

학교 명칭	이름	광복군 경력		광복 이후 국군 경력		
		계급	직 책	임관구분	최종계급/직책	
운남 강무당 (雲南講武堂)	이범석	정장	참모장, 제2지대장	-	초대 국방장관	
	이준식	대좌	지대장	육사 8특	중장, 육대총장	
	김관오		중국 중앙군 대좌	육사 7특	소장, 관구 부사령관	
귀주강무당 (貴州講武堂)	김홍일	참장	참모장	특임(육)	중장, 군단장	
낙양강무당 (洛陽講武堂)	채원개	참장	고급 부관	특임	대령, 여단장	
	오동기		중국 중앙군 중좌	육사 3특	중령, 연대장	
하남(河南)군관 강습소	송호성	참장	지대장, 편련처장	육사 2기	준장, 조선경비대총사령관	
황포 군관학교 (黃埔 軍官學校)	3기	이일태	중국 중앙군 참장	-	-	
	4기	권 준	대좌	무한 지대장	육사 8특	소장, 수도경비사령관
	5기	박시창		중국 중앙군 대좌	육사 3기	소장, 부군단장
		장 흥		중국 중앙군 대좌	육사 7특	소장, 관구 부사령관
	10기	최덕신	대좌	-	육사 3기	중장, 군단장
		김동수	대좌	서안지대에서 활동	특임(육)	준장, 사단장
	11기	박기성		중국 중앙군 중좌	육사 3기	준장, 육군 군사감
	15기	유해준	중좌	총사령부 참모	군사영어	소장, 군부사령관
17기	박영준	중좌	개봉지구특파단장	육사 8특	소장, 사단장	
낙양군관학교 한인 특별반	안춘생	대좌	남원지대장	육사 8특	중장, 군부사령관	
	고시복	대좌	참모처 과장	육사 2기	준장, 병사구사령관	
보정(保定) 군관학교	오광선	참장	국내 지대장	육사 8특	준장, 호국군 여단장	
	조개옥		중국 중앙군 대좌	육사 4기	중령, 호국군여단참모장	
남경(南京) 군관학교	이성가		왕정위군 소좌	군사영어	소장, 육대총장	

48) 韓鎔源, 『創軍』(博英社, 1984), pp. 64-66; 韓詩俊, 『한국광복군연구』, pp. 20-41; 전쟁기념사업회, 『현대사속의 국군』, 1990, pp. 319-321.

한편, 중국군 및 만주군 장교 출신 중에는 공군 출신들이 20여 명이나 있었다.⁴⁹⁾ 중국 공군의 기지사령관을 역임한 최용덕(崔用德), 중국공군 출신의 이영무(李永茂)·김진일(金震一)·김신(金信) 등이 있었고, 만주군 공군 출신으로는 대위 경력을 지닌 김성태(金成泰)가 있었다.⁵⁰⁾ 광복군 출신으로 해군 건설에 참여한 분으로는 상하이 만국(萬國)항해학교를 졸업한 후 중국 상선의 선장을 역임하고 광복군사령부 중교(中校·중령)로 근무한 민영구(閔泳玖)가 있다.⁵¹⁾

광복 이후 이들 광복군 및 중국군 출신 군사경력자들은 미 군정청의 지시에 따라 개인자격으로 입국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 결과 광복군은 신생 대한민국의 국군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국군이 아닌 미 군정이 주도하는 경비대에 들어올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에 의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뒤늦게 군에 들어오게 됐다. 정부 수립 전에 건군에 참여한 자로는 군사영어학교의 유해준과 이성가, 육사 제2기로 입교한 송호성과 고시복, 육사 제3기 특별반의 최덕신·박기성·박시창·오동기가 있었고, 육사 제4기의 조개옥 등이 있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이후 광복군 출신인 이범석 국방장관과 최용덕 국방차관이 군 수뇌부에 등용되면서 광복군 출신이 많이 군에 들어왔다. 이들은 육사 제7기 특별반의 장흥과 김관오, 육사 제8기 특별반의 안춘생·박영준·권준·오광선·이준식, 그리고 뒤늦게 귀국하여 특별 임관한 김홍일과 김동수가 있다.

(2) 일본군 출신 군사경력자

일본군 출신 군사경력자는 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장교, 지원병 출신

49) 國防部,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p. 590.

50) 國防部,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p. 591.

51)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p. 71.

의 준사관 또는 하사관, 학도병 출신의 견습사관(見習士官) 및 장교로 구분할 수 있다.

1) 일본 육군사관학교(陸軍士官學校) 출신 군사경력자

일본 정규 육사에 한국인이 들어간 시기는 1898년 입교한 제11기부터 태평양전쟁이 막바지에 이른 1945년 4월 입교한 제61기에 이르기까지 총 21개기에 걸쳐 총 112명이 일본군 장교로 임관했다(〈표 4〉 참조).

이들 일본 육사 출신 군사경력자 중 건군 대열에 참여한 기수는 제26기부터다. 제26기는 1912년 12월 1일 입교하여 1914년 5월 26일 총 11명이 임관했다. 이들은 이응준(李應俊)·신태영(申泰英)·유승열(劉升烈)·안병범(安秉範)·박승훈(朴承勳)·이대영(李大永)·김준원(金浚元)이다. 또한 1913년 12월에 입교하여 1915년 5월에 임관한 제27기에는 김석원(金錫源)·백홍석(白洪錫)·장석륜(張錫倫) 등이 있다. 제30기는 1916년 입교하여 1918년에 임관했고, 여기에는 엄주명(嚴柱明)이 있다. 1929년 4월에 입교하여 1933년 7월에 임관한 45기에는 이형석(李炯錫)이 있다.

1933년 4월에 입교하여 1937년 6월에 임관한 제49기에는 채병덕(蔡秉德)·이종찬(李鍾贊)이 있다. 1934년 4월에 입교하여 1937년 12월에 임관한 제50기에는 이용문(李龍文), 1936년 4월에 입교하여 1937년 4월에 임관한 제52기에는 박범집(朴範集), 1937년 4월에 입교하여 1940년 2월에 임관한 제53기에는 신응균(申應均), 1937년 12월에 입교하여 1940년 9월에 임관한

<표 4> 일본 육군사관학교 기수별 졸업 현황

기별	제11기	제15기	제23기	제26기	제27기	제29기	제30기	제42기	제45기	제49기	제50기
인원	21명	8명	1명	11명	20명	2명	1명	1명	2명	2명	2명
기별	제52기	제53기	제54기	제55기	제56기	제57기	제58기	제59기	제60기	제61기	계
인원	2명	2명	3명	3명	4명	3명	6명	3명	6명	9명	112명

제54기에는 김정렬(金貞烈), 1938년에 입교하여 1941년에 7월에 임관한 제55기에는 유재홍(劉載興), 1939년 12월에 입교하여 1942년 12월에 임관한 제56기에는 이형근(李亨根)·최창식(崔昌植)·김중석(金鍾碩)이 있다. 1942년 4월에 입교하여 1945년 6월에 임관한 제58기에는 정래혁(丁來赫)·박원석(朴元錫)·신상철(申尙澈)·최복수(崔福洙)·안광수(安光錫)가 있다.

이외에도 육사 재학 중 종전을 맞은 제59·제60·제61기가 있다. 1943년 4월에 입교하여 1945년 8월 재학 중 종전을 맞은 제59기에는 장창국(張昌國)이 있고, 1944년 3월에 입교하여 1945년 8월 재학 중 종전을 맞은 제60기에는 장지량(張志良)·조병건(趙炳乾)이 있다. 1945년 4월에 입교하여 4개월 만에 종전을 맞은 제61기에는 오일균(吳一均)과 한인준(韓麟俊)이 있다.⁵²⁾

이중 군사영어학교에는 이형근·채병덕·유재홍·장석륜·장창국·안광수·정래혁·신상철·한인준·조병건·김중석·오일균·이응준 등 13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 육사 출신자들은 근신 내지는 해외 전투 지역에서 뒤늦게 들어온 관계로 정부 수립 이후 특별 임관됐다. 이중 육사 제8기 특별반으로 임관한 자로는 김석원·백홍석·유승열·안병범·이대영·엄주명 등이 있고, 특별임관한 자로는 신응균·이형석·이종찬·이용문, 그리고 호국군으로 임관한 호현(護現) 출신에는 김준원이 있었다.⁵³⁾ 종합적으로 일본 육사 출신은 전체 112명 중 건군에 참여한 자는 군사영어학교 13명을 비롯하여 육사 제8기 특별반의 6명, 특별임관 4명, 그리고 호현 1명 등 모두 24명이다.

2) 지원병(志願兵) 출신 군사경력자

일제하 지원병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인 자체에 의한 병력 수급에

52) 韓鎔源, 『創軍』, pp. 34-36.

53) 韓鎔源, 『創軍』, pp. 51-53.

어려움이 있게 되자 한국인을 동원하기 위한 제도였다. 1938년 2월 22일 일제척령 제95호 「육군특별지원병령」의 공포와 동시에 실시됐다. 이에 따라 그해 4월 2일 조선총독부령 제70호로 「조선총독부육군지원자훈련소규정(朝鮮總督府陸軍志願者訓練所規程) 이 공포되었고,⁵⁴⁾ 4월 4일 육군성령 제11호로 「육군특별지원병령시행규정(陸軍特別志願兵令施行規程) 이 공포됐다.⁵⁵⁾ 이에 따라 한국인 지원병을 모병했다.

지원병은 명칭 그대로 입영 대상자가 형식상 자원에 의하여 입대하는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강제모병에 의한 것이었다. 일제는 암암리에 각 시·군별로 목표를 할당한 상태에서 시장·군수 등이 관내의 청년 가운데 '사상이 온전한 자'들을 점검어 지원시키는 방법으로 모병을 추진했다. 이들 대상자들은 군(郡)에서 1차 예심을 거친 후 각 도(道)에서 2차 전형을 하고 조선군사령부(朝鮮軍司令部)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합격 유무가 결정됐다.⁵⁶⁾

이렇게 하여 지원병으로 강제 동원된 한국 청년들은 첫째인 1938년 406명을 시작으로 1939년 613명, 1940년 3,060명, 1941년 3,208명, 1942년 4,077명, 1943년 6,300명 등 17,664명에 달했다.⁵⁷⁾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일제강점기 동원된 한국인 지원병 현황(1938~1943년)

계	1938년	1939년	1940년	1941년	1942년	1943년
17,664명	406명	613명	3,060명	3,208명	4,077명	6,300명

54) 「朝鮮總督府陸軍志願者訓練所規程: 朝鮮總督府令 제70호」,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4월 2일, p. 18.

55) 「陸軍特別志願兵令施行規程: 陸軍省令 제110호」, 『朝鮮總督府官報』, 1938년 4월 4일, pp. 46-48; 李瑄根, 『大韓國史: 臨時政府 樹立-8·15』 제10권, pp. 328-329.

56) 張昌國, 『陸士卒業生』(서울: 中央日報社, 1984), p. 45.

57) 李瑄根, 『大韓國史: 臨時政府 樹立-8·15』 제10권, p. 329.

일제는 이들 한국인 지원병 훈련을 위해 1939년 9월 현재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 자리인 경기도 양주군 노해면(蘆海面) 공덕리(孔德里)에 제1 지원병 훈련소를 설치했다. 1940년 이후 지원병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자 평양(平壤)·나남(羅南)·함흥(咸興)·대구(大邱) 등지에 훈련소를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관계로 인해 1942년 평양에 제2훈련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경기도 양주의 제1훈련소에서는 제1~제13기를 배출했고, 평양의 제2훈련소에서는 제1~제3기까지 지원병을 배출했다.⁵⁸⁾

광복 이후 지원병들은 많은 인원이 군에 들어와 건군 및 6·25전쟁시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원병 출신으로 군사영어학교에 들어온 군사경력자는 최경록(崔慶祿)·이춘경·박기병(朴基丙)·함병선(咸炳善)·송요찬(宋堯讚)·이백우(李白雨) 등 6명이었다.⁵⁹⁾

그러나 1946년 5월 1일 육사가 개교되면서 많은 지원병 출신이 육사를 통해 장교로 임관했다. 육사 제1기에는 임충식(任忠植)을 비롯하여 임부택(林富澤)·이원장·김봉철·박종민 등이 있고, 육사 제2기에는 문형태(文亨泰)·박원근·이민우·김재규·전부일(全富一)·김재명·이철희·이현진·장춘권(張春權)·한웅진·한태원·현석주·최훈섭·하갑청·신재식·고백규·공국진(公國鎭)·이상국(李相國)·김인철·김정무(金貞茂)·조병은·최석남·유의준(兪義濬)·권태순 등이 있다. 육사 제3기에는 고강도·윤태호·김진위·이창우·양찬우·최영규·박창록·윤영모·김영하·김현옥·박응규·정인택·조혁환·진용근·최병권, 육사 제4기에는 이병형(李秉衡)과 박철종이 있다. 육사 제5기에는 정세환·정규한·최대명·방경원·이원엽·손영을·최내현·송찬호·배덕진·이정순·허준(許峻) 등이 있었고, 육사 제6기에는 김판규(金判圭)·박경원(朴敬遠)·양성식 등이 있고, 육사 제7기에는 김익순·이동수·김봉태, 육사 제7기 특별로는 문중섭(文重燮)·방희(方熙)·허필은·이병우·김인·이춘화·서택윤·최헌희 등이 있다. 육사

58) 李瑄根, 『大韓國史: 臨時政府 樹立-8·15』 제10권, pp. 329-330.

59) 韓鎔源, 『創軍』, p. 58.

제8기에는 조천성·임택주·정무식·김덕모·차용태, 육사 제8기특별로는 엄기표·이기호·유승원·이백일·이석제·임수일·장수영 등이 있다.⁶⁰⁾

한편, 해군에는 이용운(李龍雲)·김충남(金忠男)·차수갑·현시학(玄時學)·고광수·염태복이 지원병 출신이고, 공군에는 김병탁(金秉鐸)·한형대(韓炯大)가 지원병 출신이다. 해병에는 강기천(姜起千)·김대식(金大植)·김두찬(金斗燦)·이봉출(李鳳出) 등이 지원병 출신이다.⁶¹⁾

3) 학도병(學徒兵) 출신 군사경력자

일본군 출신 중 '학병(學兵) 또는 학도병(學徒兵)'의 원래 명칭은 학도특별지원병(學徒特別志願兵)이다. 학도병들도 표면상으로는 지원이라는 성격을 지녔으나, 실제로는 강제징집이나 마찬가지로였다.⁶²⁾ 왜냐하면 일제는 전체 행정력과 친일단체, 친일파, 언론 등을 총동원하여 한국인 학생들을 위협하고, 그래도 불응하면 강제로 연행하거나 부모를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가족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들은 입영했다.

일제가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징집대상으로 삼은 목적은 전선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면에서 효율성을 기하는 측면도 있었으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반일·반전 등을 주도하는 이들 전문 고급 인력을 후방에 두면 위협할 것이라는 데에 있었다.

일제는 1943년 10월 1일 '대학생 징집 연기 임시 특례법'을 공포하여 종래 징집 연기 혜택을 받고 있는 전문학교 이상 대학생까지의 재학생 중에서 이공계와 사법계를 제외한 졸업생까지도 징집했다.⁶³⁾ 당시 이 법령에

60) 韓鎔源, 『創軍』, pp. 58-61.

61) 韓鎔源, 『創軍』, pp. 61-62.

62) 장도영, 『前 육군참모총장 장도영회고록: 망향』, pp. 83-88; 김웅수, 『金雄洙 회고록』, pp. 77-79; 유현중, 『金鍾五 將軍 一代記』, pp. 34-35.

63) 李瑄根, 『大韓國史: 臨時政府 樹立-8·15』 제10권, pp. 377-378;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계」, p. 112; 張昌國, 『陸士卒業生』, p. 38.

해당하는 국내 전문 및 대학생, 그리고 일본 유학생 및 졸업생은 모두 6,300명에 달했다. 그 중 일제는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입영 대상자의 70%에 이르는 4,385명의 지원서를 받아들였다.⁶⁴⁾ 한국인 학생들은 1943년 11월 20일까지 관할지 군사령관에게 지원서를 제출했고, 1944년 1월 20일 입영통지서를 받았다.

학도병들은 1944년 1월 20일 국내에서는 평양⁶⁵⁾과 대구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 부대로 입영했고, 일본에서는 학교 소재지와 가까운 부대로 입영했다. 학도병들은 최초에는 사병 또는 하사관으로 복무했으나, 전선의 확대로 점차 간부 소요가 증대되자 간부시험과 예비사관학교를 거쳐 소위로 임관했다. 이렇게 하여 장교로 임관한 숫자가 100여 명에 달했다.

학도병 출신 장교들은 광복 이후 대거 건군에 참여하여 초창기 창군의 중심세력이 됐다. 그들은 강제로 끌려갔다는 점에서 명분이 뒤틀렸고, 나이가 젊은 데다 지적 수준도 높아 건군에 참여하면서부터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보였다. 따라서 건국 이후 초대 이범석 국방장관은 "국군을 육성함에 있어서, 장교의 질은 일본 육사를 앞서야 하고, 정신면에서는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하며, 나아가 강병 육성의 장래는 학도병 출신에게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로 학도병 출신 장교들을 우수하게 평가했다.⁶⁶⁾

이들 학도병 출신들은 군사영어학교에 68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건국 후 국군의 중추 세력을 이루었다. 군사영어학교 출신 중 대장 계급에 오른 장군으로는 민기식(閔機植)·김계원(金桂元)·김용배(金容培)·김중오(金鍾五), 중장에는 박병권(朴炳權)·백인엽(白仁燁)·김종갑·최영희(崔榮喜)·최석(崔錫)·김상복·장도영(張都映)·민병권·강영훈(姜英勳)·박경원(朴景遠)·김형일(金炯一), 소장에는 이후락(李厚洛)·임선하(林善河)·최홍희·정

64) 김도형, 「일제의 한국인 병력동원 체계」, p. 116.

65) 평양에 입영한 한국인 학병들은 1,500명 정도였고, 입영한 부대는 평양 사동(寺洞)에 위치한 일본군 39여단 예하의 42·44·50연대였다(金俊燁, 『長征 1: 나의 광복군 시절』(上), 나남출판, 2003, pp. 115-117).

66) 國防部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Ⅰ, 1967, p. 310.

진완·오덕준(五德俊)·백선진·백남권(白南權)·김완룡·김병희·이상철·김웅수(金雄洙)·김종문·유흥수(劉興守)·이명재 등이 있다. 준장에는 이춘경(李春景)·원기섭·이정석·이치업·김병길·황현진·안동순·김종면(金宗勉)·이희권·김영환·심언봉·정만기·함준호·소병기·김현수·장호진·이지형(李贄衡)이 있고, 대령에는 김동영·이영순·위대선·백인기·박진경, 중령에는 조암, 소령에는 최상빈·나학선 등이 있다.⁶⁷⁾

또한 육사 입교자 중 장군까지 진출한 자는 육사 제1기의 서종철·김동빈·김집곤·황엽·김용주·최갑중·이상근, 육사 제2기의 이세호·한신·심홍선·이규학·유근창·김희덕·손희선·엄홍섭·조재미·김안일·김희준·최경만, 육사 제3기의 노재현·최세인·차문호, 육사 제4기의 조시형, 육사 제5기의 김익권·최택원·이승우, 육사 제6기의 박태원, 육사 제7기 특별의 장경순·김필상·박중윤·유양수·윤봉주·이준학·김일한·정인완, 육사 제8기 특별의 안광호, 특별입관의 오일수, 공병 제5기의 최갑동 등이 있다. 해병으로는 김성은(金聖恩) 전 국방장관이 학도병 출신이다.⁶⁸⁾

4) 비행학교 출신 군사경력자

일본군 출신 중에서 비행학교 출신으로 공군의 창설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군사경력자들이 있다. 여기에는 육군비행학교 출신의 옥만호·박희동, 소년비행학교 출신의 주영복, 비행연구소조종과를 졸업한 전명섭, 태암육군비행학교 출신의 박현수, 일본 제4항공기술부대 출신의 이홍중 등이 있다.⁶⁹⁾

67) 韓鎔源, 『創軍』, pp. 53-55.

68) 韓鎔源, 『創軍』, pp. 55-57;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p. 109;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編譯, 『韓國戰秘史: 建軍과 試鍊』 上卷, p. 58.

69) 韓鎔源, 『創軍』, p. 57.

(3) 만주군(滿洲軍) 출신 군사경력자

일제는 1931년 9월 18일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32년 3월 1일에는 만주국(滿洲國)을 수립했다. 일본은 만주국의 황제로 청(靑)의 마지막 황제였던 부의(溥儀)를 추대했다. 만주국의 수도는 장춘(長春)으로 정하고, 그 이름을 신경(新京)으로 개칭했다.

만주군(滿洲軍)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하에 설치된 만주국의 군대였다. 건국 이후 장교 확보가 시급했던 만주군은 1932년 11월 1일 서둘러 단기과정의 봉천군관학교(奉天軍官學校), 즉 중앙육군훈련처(中央陸軍訓練處)를 신설했고, 1939년 3월에는 4년제 정규과정의 신경군관학교(新京軍官學校), 즉 육군군관학교(陸軍軍官學校)를 설치했다. 그리고 신경군관학교가 설립된 후인 1940년 12월 봉천군관학교는 육군훈련학교로 개편됐다.⁷⁰⁾ 또한 만주군에는 1943년 신설된 일본 육군대학에 해당하는 육군고등군사학교(陸軍高等軍事學校)⁷¹⁾, 1937년 6월 신경에 설치된 육군군수학교, 그리고 1934년 7월 허얼빈에 설치된 육군군의학학교(陸軍軍醫學校)가 있었다.⁷²⁾

1) 봉천군관학교(奉天軍官學校) 출신 군사경력자

봉천군관학교는 만주국의 장교양성기관으로 정식 명칭은 중앙육군훈련처

70) 丁一權, 『丁一權回顧錄』, pp. 71-72; 張昌國, 『陸士卒業生』, p. 18.

71) 이 학교에는 당시 만주군 중위로 있던 정일권 장군이 한국인으로서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입교했다. 이 학교는 일본 육군대학의 분교로서 선발시험이나 전형 조건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었다. 선발인원도 제1기가 20명, 제2기가 25명이었다. 정일권 장군은 제2기로 입교하여 졸업했다(丁一權, 『丁一權 回顧錄』, pp. 75-76). 참고로 일본 육군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으로는 영친왕 이은(李垠)과 홍사익(洪思翊) 중장이 있었고, 중국 육군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으로는 김홍일·최용덕·박시창이 있었다. 결국 일제 강점기 동안 만주·일본·중국의 육군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은 모두 6명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문헌을 참고할 것. 金弘壹, 『大陸의 憤怒』, 文潮社, 1972; 丁一權, 『丁一權 回顧錄』, 1996; 張昌國, 『陸士卒業生』, 中央日報社, 1984; 韓鎔源, 『創軍』, 博英社, 1984.

72) 丁一權, 『丁一權 回顧錄』, p. 72.

(中央陸軍訓練處)이다. 일제는 만주국을 건국한 지 5개월이 되는 1932년 8월 제1회 군정부고문회의(軍政部顧問會議)에서 일본 사관학교에 해당하는 군 간부를 양성하는 학교를 만주국에 세워 만주군의 간부를 충당하기로 결정했다.⁷³⁾ 왜냐하면 대내적으로는 신흥국가인 만주국의 신속한 안정이 필요했고, 대외적으로는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일본 관동군(關東軍)으로서 하루 빨리 안정된 대소전선(對蘇戰線)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정규과정을 통한 장교양성보다는 여러 병과(兵科)를 한 곳에서 가르치는 단기과정의 장교 양성과정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1932년 11월 1일 군정부 직속으로 봉천군관학교(奉天軍官學校), 즉 중앙육군훈련처(中央陸軍訓練處)를 설치하게 됐다. 이 학교는 만주군이 필요로 하는 각 병과의 장교를 모두 양성하기 위해 경리양성부·통신양성부·헌병양성부를 운영했고, 고급막료요원(高級幕僚要員)을 교육하는 전과학생제도(專科學生制度),⁷⁴⁾ 그리고 영장(營長)과 단장(團長) 학생제도를 운영하는 종합군사교육기관이었다.⁷⁵⁾

1939년 3월 신경군관학교가 설치될 때까지 일제(日系)는 제11기, 만계(滿系)는 제9기까지 배출됐다. 만계에 속했던 한국인이 봉천군관학교에 입학하기 시작한 것은 만계 제3기부터이며 총 졸업자는 제9기까지 모두 39명이었다.⁷⁶⁾ 한국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규정이 명문화된 것은 제5기부터이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당시 이 학교 군사고문이던 홍사익(洪思翊) 중좌의 역할이 컸다.⁷⁷⁾

73) 滿洲國軍刊行委員會, 『滿洲國軍』, 蘭星會, 1969, p. 75;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식민지경험과 박정희 시대』(역사문제연구소 정기학술대회, 2002년), p. 30.

74) 1938년 10월부터 실시된 전과학생제도는 1943년 신경에 설치된 고등군사학교(高等軍事學校)로 이어졌다.

75)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30.

76)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31.

77) 丁一權, 『丁一權 回顧錄』, pp. 80-81.

그 결과 제5기에는 정일권·김백일(金白一)·신현준(申鉉俊)·송석하(宋錫夏)·윤춘근(尹春根)·문용채(文容彩)·김일환(金一煥) 등 18명이 장교로 임관했다. 제6기에는 양국진(楊國鎭)·박승환·최남근(崔楠根), 제8기에는 석주암, 제9기에는 백선엽(白善燁)과 윤수현이 있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이 중 24명이 건군 활동에 참여했다. 군사영어학교에는 정일권·김백일·김홍준(金洪俊)·김일환·문용채·최남근·양국진·백선엽·윤수현 등 9명, 육사 제2기에는 송석하·최경만·윤춘근·석주암 등 4명, 육사 제7기 특별로는 김용기(金用紀)가 있었다. 그리고 특별임관한 계인주(桂仁株)와 김응조가 있었다. 이들 중 제5기의 김일환, 제6기의 김용기·양국진 등은 육군군수학교를 졸업했다.⁷⁸⁾

특히 제5기부터 능력과 자질이 우수한 자를 발탁하여 일본 육사에 편입시켰는데, 봉천군관학교 출신의 한국인 중에서는 제5기의 김석범·석희봉·정일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즉, 김석범과 석희봉은 일본 육사 54기로 편입됐고, 정일권은 일본 육사 55기에 편입됐다.⁷⁹⁾

<표 6> 봉천군관학교 출신 한국인 군사경력자 현황

계	3기(1명)	4기(7명)	5기(18명)	6기(7명)	7기(1명)	8기(3명)	9기(2명)
39명	김정호	강재호·김응조·계인주 등	정일권·김백일·신현준·송석하·윤춘근·문용채·김일환·석희봉 등	최남근·양국진·박승환 등	최철근	석주암·김용국 등	백선엽·윤수현

78)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36.

79) 일본 육사 제54기에는 김정렬 등 3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고, 제55기에도 유재홍·김창규 등 3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韓鎔源, 『創軍』, p. 36).

2) 신경군관학교(新京軍官學校) 출신 군사경력자

신경군관학교로 통칭되는 육군군관학교(陸軍軍官學校)는 1939년 3월 10일 만주국 「공보 제1469호 육군군관학교령(陸軍軍官學校令)」에 따라 설치됐다.⁸⁰⁾ 신입생 입교는 1939년 4월부터 만주계 학생이, 그 다음 해인 1940년 1월부터 일본계 학생이 입교했다. 신경군관학교는 1945년 제7기까지 배출했다.

신경군관학교는 봉천군관학교와 달리 일본 육사처럼 예과(豫科)와 본과(本科)로 구분하여 교육했다. 이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일본 육사에 편입되어 그곳에서 본과 과정을 교육받고 임관했다.⁸¹⁾

신경군관학교 출신의 한국인은 제1기부터 제7기까지 모두 48명이었다.⁸²⁾ 제1기에는 김동하·윤태일·이기건(李奇建)·박임항·최창언(崔昌彦)·이주일·최창륜 등 13명, 제2기에는 박정희(朴正熙)·이한림(李翰林)·김묵·이병주·이상진·안영길·이준섭 등 11명, 제3기에는 최주종과 강태민 등 2명, 제4기에는 예관수와 장은산 등 2명, 제5기에는 강문봉·황택림·이종술 등 5명, 제6기에는 김윤근·김학림 등 11명, 그리고 제7기에는 김노식 등 4명이 있었다.⁸³⁾

이들 중 일본 육군사관학교 본과에 편입한 자는 22명이다. 제1기에서는 전체 수석을 한 박임항을 비롯하여 이주일·최창언·최창륜 등 6명이 일본 육사 제56기로 편입됐고, 제2기에서는 수석 졸업한 박정희를 비롯하여 이한림·이준섭 등 4명이 일본 육사 제57기에, 제3기에서는 최주종과 강태민 등 2명이 일본 육사 제58기에, 제5기에서는 수석 졸업한 강문봉을 비롯하여 황택림·이종술 등 4명이 일본 육사 제59기에, 그리고 제6기에서는 김윤근·김학림 등 7명이 일본 육사 제60기로 편입됐다.⁸⁴⁾ 이를 표로 정리하면

80)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32.

81) 丁一權, 『丁一權 回顧錄』, p. 73;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32.

82)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36.

83) 김윤근, 『혁명주체 金潤根 장군의 비화수기: 해병대와 5·15』, p. 33.

<표 7> 신경군관학교(육군군관학교) 출신 한국인 군사경력자 현황

계	제1기 (13명)	제2기 (11명)	제3기 (2명)	제4기 (2명)	제5기 (5명)	제6기 (11명)	제7기 (4명)
7개기 48명	김동하· 윤태일· 이기건· 이주일· 박임항· 최창언 등	박정희· 이한림· 김묵 등	최주종· 강태민	예관수· 장은산	강문봉· 황택림 등	김윤근· 김학림 등	김노식 등
일본 육사 편입	박임항· 이주일· 최창언 등	박정희· 이한림 등	최주종· 강태민	-	강문봉· 황택림 등	김윤근· 김학림 등	-

<표 7>과 같다.

이들 중 광복 이후 건군에 참여한 군사경력자는 31명이다.⁸⁵⁾ 군사영어학교 출신으로는 최창언·이한림·최주종(崔周鍾)·장은산·강문봉(姜文奉)·이병주·이상진 등이고, 육사 제1기에는 예관수(芮瑄壽), 육사 제2기에는 박정희·황택림 등이며, 육사 제7기 특별에는 윤태일(尹泰日)·이기건·이주일(李周一)·김영택·김묵(金默)이며, 육사 제8기 특별에는 박임항(朴林恒)·강태민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해병대에는 김동하(金東河)와 김윤근 등이 있었다.⁸⁶⁾

3) 육군훈련학교(陸軍訓練學校)와 군의학교 출신 군사경력자

육군훈련학교(봉천군관학교 후신)는 1939년 3월 신경군관학교가 설치되면서 1940년 12월 문을 열었다. 육군훈련학교는 봉천군관학교의 교육시설

84) 韓鎔源, 『創軍』, pp. 62-63;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48; 丁一權, 『丁一權 回顧錄』, p. 73.

85)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48; 韓鎔源, 『創軍』, pp. 62-64.

86) 丁一權, 『丁一權 回顧錄』, p. 72.

과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여 소위후보생(少尉候補生) 교육을 담당했다.⁸⁷⁾

육군훈련학교의 한국인은 제2기부터 입교하여 제7기까지 모두 21명이었
다.⁸⁸⁾ 제2기의 박준호, 제4기의 강동열, 제5기의 황치삼·장기춘·박성도,
제6기의 윤덕병·박동준, 제7기의 김충남(金忠男·해군소장 예편)·이룡(李
龍)·박춘식(朴春植) 등 13명이었다. 이들 중 건군에 참여한 군사경력자로
는 육사 제5기의 이룡과 박춘식, 해군의 김충남이 있었다.⁸⁹⁾

이외에도 만주군의 장교 양성학교는 육군군의학교(陸軍軍醫學校)가 있
었다. 이 학교는 1934년 7월 하얼빈에서 개설됐다. 군의학교는 을종(乙種)
의 4년제와 갑종(甲種)의 1년제 과정이 있었다. 졸업생으로는 중앙육군훈
련처의 제6기 계병락, 제7기의 박동균, 제8기의 전남규가 있었다. 또한 만
주군 군의로 특임된 사람으로 원용덕(元容德)과 신학진(申鶴鎭) 외에 8명이
있었다.⁹⁰⁾

(4) 기타 군사경력자

건군에 참여했던 군사경력자 중에서 광복군·중국군·만주군·일본군 출
신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군대에 몸담았거나, 군대 경험이 없는 가운데 건군
에 참여했던 분들도 있다. 특히 해군에서는 군 고유의 특성상 일반교육기
관에서 항해 및 갑판 기술을 익힌 인사들이 해군 건군에 대거 참여했다.

중국 상해 중앙대학교 항해과를 졸업한 선장 출신의 손원일(孫元一)⁹¹⁾을
비롯하여 조선총독부로부터 갑종선장 면허를 취득 후 선장을 역임한 박옥
규(朴沃圭),⁹²⁾ 진해고등해원양성소를 졸업한 김영철(金永哲), 진해고등해

87)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31.

88)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21.

89)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47.

90) 신주백, 『滿洲國軍속의 한국인 군인들』, p. 36.

91)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p. 25.

92)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p. 167.

원양성소와 일보 오사카 상선학교를 졸업한 정금모(鄭兢模), 진해고등해원
양성소를 나와 기관사 경력이 있는 한갑수(韓甲洙), 일본 중앙대학교 법학
과 출신으로 조선해사보국단에 근무한 바 있는 석은태(石銀泰) 등이 그들
이다.⁹³⁾ 특히 이성호(李成浩)⁹⁴⁾는 진해고등해원양성소를 1등으로 졸업한
수재였다.

진해고등해원양성소는 1927년부터 1945년까지 141명의 한국인 상선사관
을 배출했는데 그 중에 48명이 해군 건설에 참여했다. 이들은 군대처럼 규
율이 엄격한 이곳에서 군사학 과목인 항해술, 선박운용술, 기관운전, 통신
운용 등 해군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을 교
육시키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해군사관학교 제1기생부터 제3기생까
지 군사과목의 교육은 주로 이들에 의해 이루어졌다.⁹⁵⁾

한편, 군사영어학교 출신 중에서 해군의 전신인 해방병단(海防兵團)으로
전군(轉軍)한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김교식(金敎植)·김동배(金同培)·김
순일·김영조(金榮祚)·민현식·박원준·한문식(韓文植) 등 7명이다. 또한
조선경비사관학교(육군사관학교 전신) 제1기생으로 교육 중 해군으로 전군
한 사람으로는 고길훈(高吉勳)·김남교(金南敎)·김동영·김두찬(金斗燦)
·김문현·김병락(金炳洛)·김세원·김영문·남철(南鐵)·박선관·신두호
·윤덕로·윤재공(尹在拱)·이경원·장남섭(張南燮) 등 15명이 있었다.⁹⁶⁾
이외에도 중국에서 영어를 전공하고 해군 건설에 참여한 김일병(金一秉)이
있었다.⁹⁷⁾

그밖에 육군에는 제2차 세계대전시 폴란드군 대령 출신이던 김상겸(金相
謙)이 건군에 참여했다.⁹⁸⁾

93)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pp. 25-27, 31.

94)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p. 132.

95)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p. 132.

96)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p. 138.

97)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제독』, p. 131.

98) 佐佐木春隆 著, 姜昶求 編譯, 『韓國戰秘史: 建軍과 試鍊』 上卷, p. 507.

4. 광복 이후 건군 주역들의 활동

일제강점기하의 한국인 군사경력자는 약 43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광복 이후 남한에 들어온 군사경력자는 13만 명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만주, 시베리아, 중국대륙에서 활동한 광복군 및 중국군 출신자 3만 5천 명과 일제강점기 일본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남한으로 귀환한 10만 명이 바로 그들이다. 광복 이후 군사경력자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던 일본군에 복무한 사람은 모두 39만 명에 달했으나, 그 가운데 전사 및 행방불명자 15만 명과 남한으로 귀환하지 못한 14만 명 등 29만 명을 제외한 10만 명만이 남한으로 귀환했다.⁹⁹⁾

이들 남한에 들어온 군사경력자들은 장차 건국과 건군을 위해 그리고 현재 당장 시급한 치안유지에 도움이 되고자 군사경력과 연고관계를 중심으로 군사단체를 조직했다. 1945년 11월 미 군정청에 등록된 각종 정당·사회·군사단체는 모두 205개에 달했고, 그 중 군사단체는 30여 개에 달했는데,¹⁰⁰⁾ 이들은 해산될 때까지 건군 운동을 주도했다.¹⁰¹⁾

그러나 현실적으로 날이 갈수록 좌·우 대립이 첨예화되고 미 군정이 광복군을 국군으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자, 건군 운동의 양상은 일제강점기 동안 형성된 일본군·광복군 및 중국군·만주군 등 출신별 또는 연고별

99) 韓鎔源, 『創軍』, p. 30.

100) 이들 군사단체로는 조선임시군사위원회 치안대총사령부, 보안대, 학도대, 치안특별감찰대, 조선국군준비대, 학병동맹, 한국혁명군, 장총단, 장병대, 학병단, 조선국군학교,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 대한무관학교, 육군사관준비학교, 광복청년회, 조선군사후원회, 한국광복후원회, 대한민국군사후원회, 건군준비위원회, 광복군국내지대, 육·해·공군출신동지회 등이 있었다.

101) 자생적 군사단체에 대해서는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것. 韓鎔源, 『創軍』, pp. 26-66; 육군본부, 『육군발전사』 상권, pp. 71-79; 전쟁기념사업회, 『현대사 속의 국군-군의 정통성』, pp. 266-271.

로 이합집산을 하게 됐다.

이들 군사단체 중에서 좌파 성향의 군사단체로는 학병 출신의 이혁기가 이끄는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와 왕익권이 주도하는 조선학병동맹(朝鮮學兵同盟)이 있었고, 우파 성향의 군사단체로는 이응준 등 일본 육사출신의 친목단체인 계림회가 이끄는 조선임시군사위원회(朝鮮臨時軍事委員會)와 좌익의 학병동맹에서 떨어져 나온 우익 학병들로 구성된 학병단(學兵團)이 있었다.

이외에도 우파 성향의 군사단체로는 임시정부의 유동열(柳東悅) 장군이 주도하는 대한민국군준비위원회, 조성환이 총재로 있는 대한민국 군사후원회, 그리고 김구(金九) 주석이 교장으로 있는 대한무관학교가 있었다. 좌파 성향의 군사단체로는 임시정부의 좌익계인 김원봉(金元鳳)이 주도하는 중앙육군사관학교, 그리고 오정방이 이끄는 육군예비사관학교가 있었다. 이처럼 각 군사단체는 명분과 이념의 차이 때문에 대립과 분열, 충돌과 유혈 사태를 일으켰다.

(1) 조선임시군사위원회 치안대총사령부(治安隊總司令部)

조선임시군사위원회(朝鮮臨時軍事委員會)는 일본군 육군대좌 출신인 이응준과 일본 육사 출신인 김석원·신태영·백홍석·이대영·박승훈·김준원·유승렬·안병범 등이 귀환한 일본 육사의 위관 장교와 함께 발족시킨 일종의 친목단체이다. 본부를 당시의 경기여고(현 창덕여고)에 설치하고, 우선 치안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치안대총사령부를 두고 일본군 출신의 장병들을 흡수했다. 대표로 김석원이 추대되어 건국준비위원회(建國準備委員會)의 여운형과 접촉하면서 당면한 치안문제를 논의했다.

또한 조선임시군사위원회는 일본 육사출신 장교들의 친목단체인 계림회의 주요 멤버들이 모여서 학병·지원병출신들의 치안활동을 지도했고, 한편으로 이응준·김석원·신태영·최경록 등이 주동이 되어 장차 수립될 국군

편성의 초안을 계획하여 미 군정에 제시했다.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는 우파단체의 지도자적 역할을 했다.

(2) 학병동맹(學兵同盟)

학병동맹은 1945년 9월 1일 조선학도특별지원병 출신의 귀환 장병들이 종로의 한청빌딩에서 결성한 군사단체이다.¹⁰²⁾ 이들은 위원장 왕익권과 부위원장 이춘영 등으로 지도부를 구성했다.

최초 학병동맹이 결성되자 많은 학병출신들이 이 조직에 참가하여 당면한 치안유지에 참여했다. 그러나 학병동맹 간부들이 점차 좌익 색채를 띠게 되자 좌·우익 세력간에 내부 분열이 일어나게 됐다. 최홍희·최영희·안동준·김완용·임선하·백남권·김병휘·김형일·김종갑·이희권·민기식·김계원·함준호 등 37명이 주축이 되어 좌파학생들과 결별하고 새로이 학병단을 결성하게 됐다. 이로써 학병동맹은 좌파 성향을 대표하는 단체로 남게 됐다.

(3) 학병단(學兵團)

학병동맹에서 이탈한 우파 학병들은 일제 말기에 강제로 전쟁에 끌려 나간 전문대학 이상의 학생들이었다. 처음에는 같은 이념 아래 건국과 건군의 역군이 되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학병동맹이 점차 공산당의 전위부대로 좌경화되어가는 것을 보고 1945년 12월 16일 우익성

102) 학병동맹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강제학병제도로 인하여 사선을 넘은 친구들의 친목을 도모하여 견고한 단결을 하며 제국주의 세력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족해방의 완전을 기할 것. 신조선 건설의 추진력이 될 것. 신조선 문화운동에 진력할 것. 현 과도기에 있어 치안유지에 협력하고 장차 국가창건에 노력할 것(國防部,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제1권, p. 249).

향의 학병들이 그들과 결별하고 새로이 학병단을 결성했다. 이 때 그 수가 3,000명에 달했다.¹⁰³⁾

최초 학병단 대표로는 총사령 안동준, 참모장 김근배, 참모 박성화·김학천 등이 맡았다가 조직 개편 후에 위원장에 김완용, 부위원장 김근배·박성화, 총무부장 안동준 등으로 새 지도부를 구성했다. 이들 학병단의 많은 학병들이 군사영어학교에 입교하여 건군에 참여했다.

(4) 조선국군준비대(朝鮮國軍準備隊)

조선국군준비대는 광복 후 귀환한 일군 출신 장병들이 치안유지를 위해서 만든 귀환장병대¹⁰⁴⁾와 8월 30일 박죽된 귀환군인동맹이 통합하여 만들어졌다. 총사령에는 학병출신인 이혁기가, 그리고 부사령에는 박승환이 임명됐다.

조선국군준비대는 본부를 서울 명동에 두고 일본군 지원병 훈련소 자리인 태릉 육군사관학교를 훈련소로 사용했다. 조선국군준비대는 남한의 각도에 지대를 설치하고 6만의 대원을 포섭하여 15,000명을 훈련시키는 등 그 활동이 활발했다. 표면적으로는 앞으로 수립될 정부의 국방군을 양성한다는 기본원칙을 내세웠지만 간부진은 좌익사상을 지닌 자들이었다.

이처럼 국군준비대는 조직면에서 어느 군사단체보다도 강력한 조직을 갖고 있었으며, 간부들은 공산당의 전위대로서 '남한인민항쟁유격사령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조선국군준비대는 김두한(金斗漢)의 대한민청 청년대원들의 조직적인 습격을 받고 조직이 분쇄됐다. 그 후 미 헌병대가 김두한 부대를 무장 해제하면서 함께 국군준비대의 무기도 압수함

103) 학병단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국가승인을 촉구하겠다. ② 우리는 국방의 간성이 되겠다. ③ 우리는 국내건설의 초석이 되겠다(國防部,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제1권, p. 251).

104) 1945년 8월 17일 서울 교동국민학교에서 발족됐다.

으로써 국군준비대는 완전히 와해됐다.

(5) 조선국군학교(朝鮮國軍學校)

조선국군학교(중앙육군사관학교)로 발족했던 이 학교는 조직확대를 위하여 교사를 광장리 구일본군병사로 이전했다. 그리고 1946년 1월 10일에는 교명을 중앙육군사관학교로 개칭하고, 상해임시정부 군무부장이었던 김원봉을 교장으로 추대했다. 이때 편성된 간부진으로는 부교장 임철재, 총무부장 심재은, 교무부장 박만, 연구부장 권태형, 경리부장 전덕원, 고문 이병희 등이 있었다.

(6)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韓國將校團軍事籌備會)

1945년 12월 27일 결성된 한국장교단군사주비회(韓國將校團軍事籌備會)는 건국 후 국방과 치안을 책임질 사관(士官)을 양성하고 병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항식·신하균·김사억 등이 주동이 되어 조직한 군사단체이다. 회장 이항식을 비롯하여 총무부장 신하균, 군무부장 김사억, 교육부장 오승근, 참모부장 윤병호, 기획부장 신진균, 경리부장 한학수, 지방부장 민영재, 선전부장 허곤, 그리고 고문에 조성환·황학수·성두현 등이 있었다.

(7) 대한무관학교(大韓武官學校)

대한무관학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이 군인들을 양성하기 위하여 1945년 11월 초 창신동에 설립한 군사학교이다. 교장에는 임정 주석인 김구를 비롯하여 부교장에는 전성호(全盛鎬), 교관에는 이춘경 등이 임명됐다. 대한무관학교는 1946년 1월 25일에 334명이 입교했다. 이들 중에는 건군에 참여한 장경석과 남철(南鐵) 등이 있었다.

(8) 광복군 단체(光復軍 團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로서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에서 창설됐다.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이 발발하자 중국 도처에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던 독립군과 중국군에서 활동하던 자들을 통합하여 이청천(李靑天)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추대했다. 광복군은 1941년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일본군 및 왕정위(汪精衛) 군대와 항전하는 등 중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했다.

광복군은 5개 지대로서 약 5,000명이었으나, 광복 이후에는 2만 명으로 늘어났다. 장개석 총통이 한국광복군에 대하여 복원령을 선포했으나 남한에는 미 군정이 수립되어 광복군의 공식 환국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자격으로 환국할 수밖에 없었다.

광복 이후 오광선은 장차 국군 편입을 목표로 광복군 국내지대를 결성했다. 또한 광복군 출신들은 1946년 2월 9일 대한민국군사후원회를 결성했다. 이 단체는 1945년 9월에 조직된 조선군사후원회, 11월에 조직된 한국광복군후원회, 12월에 조직된 한국광복군사원호회 등 3개 단체를 통합한 것이다. 총재에는 조성환, 부총재는 안재홍, 그리고 회장에는 서정회가 맡았다.¹⁰⁵⁾

한편 광복 이후 남한에 설립된 군사단체는 민족의 정치적 구심점을 제시할 만한 뚜렷한 주도세력이 없던 현실에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다가 1946년 1월 21일 미 군정청의 군정법령 제28호에 의거하여 내려진 '군사단체 해산령'에 따라 모두 해체됐다.

이후 건군 주역들은 장차 설립된 조국의 간성이 되기 위해 군사영어학교(軍事英語學校)와 해방병단(海防兵團), 그리고 경비사관학교를 통해 임관된 후 본격적인 건군 활동을 했다.

105)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韓國戰爭史: 解放과 建軍』 제1권, pp. 254-255.

5. 맺 음 말

일제강점기 전시지배체제하에서 대한민국 건군의 주역들은 식민지 공간에서 강압에 의해 다양한 군사경험을 했다. 당시 일제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을 차례로 일으키며 제국주의 전쟁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는 국력의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전쟁수행을 위해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그들이 강점한 식민지에 대해서도 인적·물적 자원을 강제로 동원하는 등 강력한 식민지 수탈정책을 추진했다. 여기에 한반도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일제는 사상적으로 한국인의 완전 '일본인화' 정책 속에서 한국의 청년들을 그들이 수행한 침략전쟁에 충알반이로 동원하기 위해 갖가지 동원정책을 수립해 이를 한국인에게 강제로 적용했다. 그 결과 일제에 의해 강제로 징집 및 징용된 한국인의 수는 무려 39만 명에 달했다. 또한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직접 항일독립전선에 뛰어든 광복군과 중국군도 3만 5천 명에 달했다. 이들 중 광복 후 남한에 들어온 군사경력자는 10만 명에 불과했다. 그 가운데 건군 활동에 참여한 군사경력자는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하 이들 군사경력자들은 광복군, 중국군, 일본군(육군사관학교·특별지원병·학병·군속), 만주군(군관학교·사병)에서 군사교육 및 훈련을 받았다.

이처럼 건군 주역들은 일제의 전시체제하에서 다양한 군대를 경험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일제하에서 건군주역들의 입대 배경을 비롯하여 일제의 병력동원체제, 암울했던 그 당시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들이 선택했던 다양한 군대의 특징 요소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복 이후 건군주역으로 활동한 이들 군사경력자들은 일제가 지배하는 '식민지 공간'을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군대를 선택했다. 그

들은 일제강점기 전시체제라는 비상시국(非常時局)하에서 만들어진 각종 전쟁수행 정책과 제도 위에서 불가피하게 군대에 입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그들은 한반도를 떠나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질적이면서 다양한 군에 복무하게 됐다.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군이나 광복군으로, 그리고 학병으로, 만주 대륙에서는 만주군으로, 국내 및 일본 그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일본군으로 복무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경력을 바탕으로 광복 이후 건군에 참여하게 됐고, 그 후 북한의 기습남침에 의해 6·25전쟁이 발발하자 국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로써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둘째, 건군주역들의 군대 입대 동기는 그들의 회고록이나 평전을 통해 다양하게 표출됐다. 광복군에 속한 건군주역들은 대부분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갔는가 하면, 일본군이나 만주군에 들어간 건군주역들의 입대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즉, 그들은 어릴 때 꿈꾸었던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생계를 위한 직업의 일환으로, 일본인 학생을 누르기 위한 단순한 경쟁심의 발로에서, 군인이라는 직업이 자신의 적성에 맞고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주변의 지인(知人)이나 친척 또는 스승의 권유에 의해서, 강제노역으로 끌려가기보다는 차라리 군인으로 가는 편이 나아서, 일본의 강제징집에 의해서 등 개인의 주변 환경과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또 이들 중에는 미래 독립될 조국의 간성이 되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이들 식민지하의 건군 주역들은 동서고금의 모든 젊은 이들이 어릴 적에 한 번쯤 가졌을 범한 군의 대장(大將)이 되고 싶은 꿈과 희망, 학교생활에서 매일 부딪히는 학우들과의 경쟁심, 장래 진로에 대한 스승이나 친지들의 충고 및 권유, 일제 식민지라는 특수상황에서 노무자로 끌려가기보다는 차라리 전쟁터에서 남자답게 싸우다가 죽겠다는 젊은이로서 가질만한 단순한 생각, 그리고 미래 건설될 조국을 위해 무엇인가 보람찬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군을 선택했던 혈기 충천한 청년들이었다.

셋째, 일제는 한반도를 그들의 대륙진출을 위한 병참기지 내지는 병력

공급기지로 만들기 위해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추진했다. 일제는 보안법, 치안유지법, 출판법을 통해 한국인의 언행을 통제하다가 급기야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통해 한국인의 사상까지도 통제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일제는 내선일체론, 조선어 사용금지, 창씨개명, 신사참배 등을 내세우며 민족말살 정책을 추진했다. 더욱이 일제는 그들의 침략전쟁에서 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소위 그들의 충알반이로 만들고자 전장으로 내몰았다. 이를 위해 그들은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전쟁터로 내보냈다. 이처럼 일제는 한국을 단순한 경제적 수탈을 위한 식민지 정책이 아니라 한반도를 영구적인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고, 심지어는 그들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한국인들을 군인 또는 노무자로 끌고가는 전쟁 정책을 추진했다.

넷째, 일제강점기하에서 군사경력자 출신 가운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은 일본군 출신이었다. 그 다음이 광복군 및 중국군이고, 가장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룹이 만주군 출신이었다. 일본군 출신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비롯하여 육군 및 해군 지원병, 학병, 군속 등 다양한 층을 이루고 있었다. 특히 일제는 육군예비사관학교·육군경리학교·육군유년학교·육군병기학교·육군소년전차병학교·육군소년통신병학교·육군야전포병학교·육군중포병학교·육군방공학교·동경육군항공학교·육군도야마(戶山)학교 등을 운용했고, 또 소년수병·특별소년병·비행예과연습생(갑종·을종)을 통해 해군 및 공군요원을 징집했다. 이에 따라 일본군 출신의 군사경력자는 무려 39만 명에 달했다. 광복군은 신흥무관학교·중국 군관학교·일본 육군사관학교 출신들로 구성됐고, 중국군은 대부분 중국 군관학교 출신자들이었다. 광복군 및 중국군 출신 군사경력자들은 35,000명 정도였다. 만주군은 주로 봉천군관학교·신경군관학교·육군훈련학교·군수학교·군의학교 출신의 장교들로 120여 명에 불과했다. 이외에 폴란드 군에서 복무한 자도 있었다.

다섯째, 건군 과정에서 건군주역들은 각 군별로 특징적인 면을 보였다. 육군은 주로 광복군·중국군·일본 육군사관학교·학병 출신 장교·지원병 출신 준사관 및 하사관·만주군 출신 군사경력자들이 비교적 골고루 참여해 건군의 기틀을 마련했다. 해군은 군사경력자가 일본군 해군 소좌 출신인 이용운(李龍雲)¹⁰⁶을 제외하고는 없었기 때문에 손원일이 주축이 돼 중국대학의 항해과·일본 및 중국의 상선학교·일본 및 국내의 해원(海員)양성소 출신들을 대거 영입해 해군을 창설했다. 공군은 중국군 및 일본군 출신 베테랑급 조종사 출신들을 주축으로 공군을 창설했다. 공군은 비록 처음 육군에 소속되어 출발했으나, 1949년 공군으로 독립하고 이어 6·25전쟁을 거치며 장족을 발전을 했다. 해병대는 만주군 군관학교 출신들이 주로 참여해 한국 해병대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듯 건군주역들은 일제강점기하에서 비록 주변 환경과 개인적 성향에 의해 색깔이 다른 군복을 입고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그들은 분명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엄연히 한민족으로 태어나 오랜 시간 한반도에 뿌리를 두고 그곳에서 생활하며 오랫동안 같은 문화적 공간속에서 함께 부대끼며 살아온 같은 피를 나눈 동일 민족이었다. 따라서 광복 이후 그들이 귀국을 서두르며 조국의 품에 돌아와 맨 먼저 한 일도 건군활동이었다. 이런 다양한 군사적 배경을 지닌 건군주역들의 노력과 헌신은 6·25전쟁을 통해 국가수호정신으로 승화됐다.

(원고투고일 : 2008. 5. 28, 심사수정일 : 2008. 7. 21, 게재확정일 : 2008. 8. 8)

주제어 : 일제강점기,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광복군, 중국군, 만주군, 일본군, 광복, 건군

106) 오진근·임성채 공저, 『해군 창설의 주역: 손원일 재독』, p. 127.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History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the Korean Soldiers and their Military Backgroun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Nam, Jeong-ok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about the Korean military history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rmy (ROKA), and to review the Korean soldiers and their military background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1910-1945.

A generation of Japanese economic, political, and military interfe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culminated in Korea's formal annexation to Japan on August 22, 1910, Korea) became a Japanese colony with Prime Minister Yi Wan-yong's signing of the Treaty of Annexation, and treaty was announced to the Korean people by Emperor Sunjong(純宗) in a proclamation on August 29 marking the end of the 518 years rule of the Joseon(朝鮮) Dynasty. Annexation inaugurated a thirty-five year period of social and economic change directed to the ends of the Japanese state that has left a bitter legacy to this day.

Above all, after the Manchurian Incident of 1931, the Japanese empire control tightened: the imperial administration saw the Korea Peninsula military base needing their war performance. Also, the Japanese empire began to enforce the Korean's mobilization in ordre to perform their empire war after the Sino-Japanese in 1939 and the Pacific War in 1941. Especially, the Japan controlled to enforce regulations the observance of

Shinto(神社), the combination of the Japanese's emperor and ancestor worship. The Japan ordered every Korean public event to begin with the "Pledge of the Imperial Subjects."

Accordingly,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many Korean youth people became some another state's soldiers. They enlisted to force various armies in the Manchuria, the Japan mainland, the China Continental, the Pacific area, etc. In a result, they became soldiers, and served as soldiers of the Chinese Army, the Japanese Army, the Restoration Army (Gwangbokgun), the Manchukuo's Army until the Liberation of Korea, August 15, 1945.

After the Liberation Day of Korea, those returning from Japan, Manchuria, and China with military background tried to form the establishment of the regular army for the new nation with an eye to playing a leading role. They played a key role to protect their nation during the Korean War.

Key Words: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Manchurian Incident of 1931, The Sino-Japanese War in 1939, The Pacific War, The Restoration Army (Gwangbokgun), The Chinese Army, The Manchukuo's Army, The Japanese Army, The Liberation of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Armed Forces